

수첸(舒群)의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에 나타난 ‘공간’에 대한 푸코적 해석

이강인*

【목 차】

1. 서론
2. 수첸(舒群) 소설속 주인공들의 주요형상
3. 소설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에 나타난
‘공간’에 대한 푸코적 해석
 - 1) 경계-보정(compensation)의 공간
 - 2) 감시-규율의 공간
 - 3) 언어 권력의 공간
4. 결론

【초록】

수첸(舒群)의 소설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는 일제가 식민지화 하고 있는 조국을 버리고 간도-만주라는 이상향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 힘들게 살아가는 고려인(조선인)-귀리(果里)의 삶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소설의 배경인 간도-만주의 공간은 유토피아가 아닌 소외와 낯설음의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키워드】 수첸(舒群), 조국 없는 아이, 소설, 공간, 동북작가

*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기타초빙교수 (whoru888@naver.com)

1. 서론

한국의 근현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에 대한 조선인들의 이미지와 중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특히 동북출신 작가들의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는 사뭇 다르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민문학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 주류집단과 주변부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당연히 ‘간도’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주류집단은 현지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며 주변부는 조선에서 간도로 건너가 정착하고자 하는 조선인들이기에 어떤 사건을 두고서 바라보는 시각과 작품의 서술경향도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많은 작가들은 동북지방 특히 간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에 있어서 중국인들은 부정적이거나 또는 착취자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최서해의 「탈출기」, 「홍염」이나 한설야의 「홍수」, 안수길의 「벼」, 「새벽」 등의 작품에서는 조선인을 착취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부정적인 중국인들이 많다.¹⁾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중국의 동북출신 작가들의 소설에는 대체적으로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췌(舒群)의 「바다의 피안(海的彼岸)」,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 뤼빈지(駱賓基)의 「혼돈초기(混沌初開)」 등에서 조선인들은 항일투쟁에 나선 혁명가, 이민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조선인에 대한 연민, 조선인으로서 조선인과 중국인을 못살게 하는 일본의 앞잡이, 가난한 조선인에 대한 멸시 등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초창기 간도 이주자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간도로 건너와 이질적 문화를 접하였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낯선 문화와의 급격한 조우와 일본의 간도에 대한 강제 점령과 만주국 건국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은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1) 최서해의 작품으로는 「탈출기」, 「기아와 살육」, 「홍염」, 강경애의 작품으로는 「소금」, 「원고료 이백원」, 「어둠」, 안수길의 작품은 「새벽」, 「벼」, 「목축기」, 「북간도」 등이 있다. 한국문학에서의 중국형상에 대한 연구들은 ‘유이민소설’로 정의되면서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 현대문학 중의 중국형상연구」, 「일제강점기 한국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연구」, 「1920,30년대 한국 단편 소설에 나타난 이주농민상 고찰」 등이 있다. 한국소설로서 대표적으로 간도를 공간배경을 삼고 있는 것으로는 안수길의 「북간도」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는 간도가 가족과 더불어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이민 조선인들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삶의 투쟁의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가 간도를 바라보는 눈길과 느끼는 마음은 특별히 다른 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영민, 『1896-1945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14. 참조.
남춘애, 「중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소설 “북간도(北間島)”의 중국 형상 연구」, 『어문연구』, 69집, 어문연구학회, 2011.p.236.

본 글은 이러한 ‘간도-만주’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소설을 쓴 수첸(舒群)의 소설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수첸(舒群)의 초기 작품 활동에서는 소설의 주인공 또는 중심인물이 고려인²⁾으로 삼고 있기에 중국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고려인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³⁾ 그리고 수첸(舒群)의 소설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는 간도-만주라는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기에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에서 ‘간도-만주’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적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은 수첸(舒群)의 작품세계의 이해와 소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간도-만주의 공간적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2. 수첸(舒群) 소설 속 주인공들의 주요 형상

일반적으로 동북지역의 작가들은 고향을 떠나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에 대한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을 통하여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다. 이러한 그들의 창작경향을 바탕으로 중국문학에서 동북작가들은 ‘동북작가군’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어 오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들로는 조선 사람과의 접촉이 일상화 되었던 작가들로 수첸(舒群), 샤오홍(蕭紅), 샤오쥔(蕭軍), 뤼빈지(駱賓基) 등이 있다. 이들은 일본이 동북지역에 만주국을 건설하자 고향을 떠나 타지방으로 망명하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동북작가들은 주로 1930-40년대에 자신들의 입장과 비슷하게 놓여진 고려인을 대상으로 작품을 많이 썼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이주민인 조선인들의 항일 정신과 피지배자들의 강한 민족주의 정신을 작품 속에 드러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 강한 애국심과 항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선인들의 항일혁명가 또는 항일애국투사 등을 투영시켜 자신들의 의지와 희망을 대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의 영웅적

2) 고려인은 구소련이 붕괴 이후 독립국가 연합의 국가들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이르는 말이다. 이들의 정체성은 1860년대 초 무렵부터 러시아 제국령 프리모르스키주로 대거 이주한 재로 한인으로부터 유래한다. 작품 속에서는 동북3성을 배경으로 해서 작가는 주인공 귀리(果里)를 고려인으로 설정하였기에 고려인으로 통일하겠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B%A0%A4%EC%9D%B8>

3) 중국인들이 1930, 40년대는 조선과 동일한 일본 식민지시대를 겪고 있기에 그들의 눈에 비친 고려인(조선인)의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함의를 지니고 있지만 항일이라는 교차점에서 중국인들은 조선인(고려인)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들의 땅에서 이루어 내었기에 더욱 절실히 다가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중국인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타자화된 고려인에 투영하여 항일과 이데올로기를 고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타향살이 하는 고려인을 ‘타자화’ 함으로써 자신들의 모습을 반추하고 그 ‘타자’에 자아의 가치를 반영시킴으로써 자아존재의 의미와 함께 자신들의 처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⁴⁾

수첸(舒群)은 그의 소설에 자주 고려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에서는 남자아이 귀리(果里)를 통해 반항정신을 나타내 있으며, 「바다의 피안(海的彼岸)」에서는 상하이로 망명한 항일투사의 이미지를 매우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다. 「혈의 단곡 8(血的短曲之八)」에서는 위안부로 끌려간 어린 조선인 여자 아이를 통한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첸(舒群)은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에서 독립투사를 낳은 고려인의 강한 어머니의 모습까지 그려내면서 조선의 당시 항일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독립투사 안중근의 실명을 거론하며 항일정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면 수첸(舒群)의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보편적 인식이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또한 중국 동북 출신 문학가들은 유민정책으로 조선에서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해온 고려인들의 빈곤과 처참함을 소설에 등장시킨다. 이것은 동북출신 작가들 자신들 역시 만주국으로부터 벗어나 타지로 이주해간 이주민의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찌 보면 자신들이 어렸을 때 보아왔던 조선인과 그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오버랩되었던 것이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는 같은 중국인이지만 소외되고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것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주민들에게는 ‘언어문제’가 정체성의 문제로 바로 연결되며 이 언어의 정체성 문제는 자신들이 타지에서 느끼는 차별 또는 소외감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 타지에서 느끼는 방언이 가져오는 소외감 속에서 자신의 고향 동북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했을 것이고 또 다시 조선인의 언어를 기억하며 조선인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것이다. 수첸(舒群)은 작품들 속에서 언어를 매개로 주인공의 심리나 처한 상황 등을 잘 표현하였는데, 소설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에서도 중국어, 구소련어, 조선어 등을 매개체로 잘 활용하고 있다.⁶⁾

4) 김철, 「‘동북작가군’ 작가들의 문학작품 속에 ‘타자화’된 조선인형상연구」,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12, p.393.

5) 김철은 위의 논문에서 조선인의 형상을 첫째는 항일계몽의 목적과 설교화된 조선인혁명가의 형상, 둘째는 ‘망국노’ 형상에 대한 부각, 셋째는 유이민 및 이주민농민의 형상 부각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3. 소설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에 나타난 ‘공간’에 대한 푸코적 해석

수권(舒群)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1936)는 일본제국이 중국을 손에 넣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1931년 9.18 만주사변을 소설의 중심부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1931년 9월 18일을 전후로 하여 어린 소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국기게양의 변화를 통해 일본의 동북지방침략과 만주의 불안 그리고 만주국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중국소년 ‘나-귀와레푸(果瓦列夫)’이지만 실제로 ‘나’의 눈으로 고려인 소년 ‘귀리(果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귀리(果里)는 아버지가 지식인으로서 일본에 시위를 하다 처형된 조선의 지식인 아들이다. 9.18만주사변이 일어나기 4년 쯤, 10살 때 어머니의 강한 권유로 식민지 조선을 떠나 안전하고 자유가 보장된 동북 간도로 넘어 왔다. 그는 이국땅에서 빈곤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 학생이나 문지기 중국 아저씨한테 조롱을 당한다. 그러나 주인공 ‘나’는 귀리(果里)의 굶지 않는 기개에 탄복하여 귀리(果里)를 친구처럼 대한다. 9.18사변 후에 귀리(果里)의 조국을 점령한 일본인들이 중국의 도시에 나타났을 때, 귀리(果里)와 같은 고려인들은 노동현장으로 끌려갔다. 아버지의 원수인 일본인을 피하기 위하여 이국으로 왔는데 이국의 땅에서조차 일본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귀리(果里)의 어린 마음은 적개심으로 불타 복수를 준비한다. 일본인들을 따라서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때 귀리(果里)는 칼로 일본인을 찌른다.

이 사건 후에 평소에 귀리(果里)를 비웃던 소련 학생들도 더 이상 그를 깔보지 않고 영웅으로 삼았다. 그러나 귀리(果里)의 이 작은 반항으로는 일본인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었다. 중국의 영토까지 일본인들에게 점령되고 학교마저 폐쇄되어 소련 학생들이 귀국할 때 ‘나’와 귀리(果里) 둘만이 망국민으로서 갈 데가 없었다. 소련 학생들과 헤어질 때 ‘고려의 국토에 너희 조국의 깃발을 꽂는 것은 고려인의 책임이고 너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소련 여교사 쉼되와 (蘇多瓦)의 말을 기억하고 귀리(果里)는 ‘나’와 함께 동북을 떠나 남쪽 상하이로 가기로 결심했다. 소설 결미에 두 소년은

6) 중국 논문들 중에 張英은 「現代東北作家群的當代命運和創作走向——後東北作家群尋蹤」에서 수권(舒群)의 주제를 항일전쟁 속의 어린아이의 형상 위주로 당시의 참혹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孫嘉憶은 「東北作家群小說的死亡敘事研究」에서 동북작가들의 작품경향을 사망을 위주로 한 현실을 서술하였다. 林靜怡의 논문 「抗戰時期東北流亡文人的流亡體驗與書寫(1931-1945)」도 그들의 타향살이의 근원이 일본의 중국침략이며 이로 인해 고향의 그리움과 항일전쟁에 대한 작품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배에서 내렸을 때, 고려인으로 오해받고 일본군에 잡힌 ‘나’를 구하기 위해 귀리(果里)는 큰 소리로 ‘내가 고려 사람이야, 그 친구는 아니다’라고 외친다.⁷⁾

1) 경계-보정(compensation)⁸⁾의 공간

푸코는 그의 저서인 『헤테로토피아』에서 헤테로토피아의 의미는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장소이지만, 그 공간의 원래 쓰임의 기능보다는 다른 보편적인 공간에 대한 의의제기를 행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토피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관념적인 이미지를 갖는다면, 헤테로토피아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와 평행적이면서 수평적 관계를 지니는 공간으로 또한 피난처인 보정(보상, compensation)로서 유토피아로의 재귀의 장소로도 이해할 수 있다.⁹⁾ 그리고 푸코는 『타자의 공간』에서 헤테로토피아는 ‘타자의 공간’을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현실에 부재하는 유토피아와는 반대로 실재하는 공간 즉 반(反)공간으로서 정의하고 있다.¹⁰⁾

이러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에서 보면 중국 동북 지방인 간도-만주지역은 당시 조선인들에게서는 유토피아로 인식되었지만 결국에는 유토피아가 아닌 반공간인 헤테로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푸코의 공간적 개념을 박명진은 그의 논문에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으로 ‘양산박’의 공간적 의미를 해석해내었다. 『수호전』에서의 ‘양산박’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선택된 장소였으나 근본적인 불안과 소외로 경계와 교섭의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즉 작품 속에서 양산박은 줄곧 경계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¹¹⁾ 간도-만주 지역 역시 기

7) 수천(舒群)의 소설 『바다의 피안(海的彼岸)』은 중국으로 망명한 조선 애국투사의 애국심과 내면 세계를 형상화하였다. 혁명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이성과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개인적 감정의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이성이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고독하고 힘든 혁명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혁명가의 영웅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다른 항일 영웅 소설과 달리 이 소설은 주인공의 인간적인 내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8) 박명진은 양산박을 헤테로토피의 반(反)공간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경계의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피난처인 ‘보정(보상, compensation)의 공간’으로서 이상세계로 다시 돌아가려는 재귀의 장소로서의 헤테로토피아로 볼 수 있다. 양산박은 경계의 위치에 놓여 교섭의 여지를 지니게 된 것이다. 「<수호전> 양산박의 생성과 소멸의 공간적 의미 -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학』, 대한중국학회, 2020, pp.54-55.

9) 그러나 이 공간은 좀 더 확장시켜 보면, 복수적이며, 분산적 공간, 그리고 이질적 공간으로 결국 한 사회가 일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의 바깥에 위치하는 무엇이가에 관련되는 공간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허경,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 초기공간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시인문학연구』, 3(2), 도시인문학연구소, 2011.

10) 이영희, 「일본소설 속의 헤테로화(化)하는 공간, 만주」, 『인문연구』, 2014, p.117.

11) 박명진, 「‘수호전’ 양산박의 생성과 소멸의 공간적 의미 -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학』, 대한중국학회, 2020, p.55.

능적으로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간도-만주 지역은 구한말에 와서 조선인 생활 근거지가 되었고 조선인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점이자 구국 활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다. 19세기 말 청나라가 금지령을 해제함에 따라 중국 동북으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1920년-1945년 사이 간도-만주지역은 일본 강점기라는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그 당시 중국 동북 지역에서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 러시아인, 몽골인, 만주족 등 다민족이 잡거하는 ‘오족협화’상태로 다른 지방과 달리 민족 간의 충돌과 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발전한 지역적 특징을 지녔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전쟁을 통한 중공업 육성, 물자수송을 위한 철도와 항만 그리고 도로건설은 만주를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 내었다.

이러한 간도는 또 다른 공간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주국은 일본 본토에 대한 대안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실험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다. 일본은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을 건설하고 수도를 지금의 창춘인 ‘신경’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오족협화’와 ‘왕도낙토’의 건국정신을 모토로 하여 일본과 만주가 동일시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대동아공영과 일본열도의 확장으로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국가로 확립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성격을 지닌 만주는 2차 세계대전의 말기로 접어들면서 만주에 대한 관심이 일본 고노에 정부의 신체제 선언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만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은 만주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서부개척을 이룬 골드러시와 비견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상향으로 동경하며 달려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삶의 고통과 빈곤 그리고 통제와 압박을 동시에 경험하는 허상의 세계였다.

이러한 지점에서 안지나¹²⁾의 논문에서 살펴보면,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는 왕도주의와 민족협화로 이루어졌으며,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 그 자체로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동양의 이상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일본이 꿈꾸는 만주국은 해양에서 대륙으로 향한 열망과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만주국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 만주국은 하나의 동양에 위치한 이상국가라는 것이다. 결국 만주는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에게는 이상 국가 그 자체였지만, 실제적으로 빈곤과 고통, 낯설음과 차별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유토피아라고 상상한 그 곳은 그리로 이주함과 동시에 유토피아는 사라

12) 안지나, 「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변형 - 민족협화에서 오족협화로, 왕도주의에서 왕도낙토로」, 『만주학회』, 2014, pp.36-37.

져 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반공간인 헤테로토피아가 생성되며 정상적이고 균질적인 근대화된 공간이 아닌 반공간인 경계-보정의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1) “那么, 妈妈呢?” 我问.

“妈妈? 妈妈还在高丽.”

“你怎么来了?”

“妈妈说-我们不要再过猪的生活, 你们找些自由的地方去吧! 我老了, 死了也不怕-五年前, 妈妈到姨母家去住. 我们来中国的时候, 我才十岁.”¹³⁾

2) 但是, 在影场的门前, 发生了极大的难题, 这个守门的大身量的中国人, 便坚持不许果里进去.

我和他说了许多中国话, 仿佛是他给我些情面. 他总是不放开这么一句话——“他不是东铁学校的学生.”

“你让他进去吧, 我们的先生和同学全认识他.”

“谁不认识他, 穷高丽棒子!”

果里不懂中国话, 他很沉静地站着.¹⁴⁾

위의 두 단락은 조선을 떠나 자유를 찾아 온 귀리(果里)가 겪는 장면이다. 이는 혁명가인 아버지를 죽음으로 잃어버리고 어머니의 권유로 고려(조선)를 떠나 자유와 행복을 찾아 압록강을 건너 중국 간도지방으로 건너온다. 그러나 실제 10세 소년이 겪는 삶은 그들이 알고 있던 상상의 유토피아가 아닌 반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¹⁵⁾ 낯설음과 소외감, 그리고 차별과 조국 없음의 서러움은 그로 하여금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어 버린 것이다. 결국 그가 떠나 온 고향에 대한 향수는 타자에게 겪는 소외와 낯설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귀리(果里)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간도에서 겪는 소외감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조국 없음의 슬픔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또한 그는 조국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虽然我们是藏在货舱里, 被赛在麻袋的缝隙间, 不住地有老鼠从我们的头顶跑过, 但是, 不停止的轮机似乎在告诉我们-“向祖国去的孩子们! 不要害怕, 不要叫饿, 让一刻你们应当

13) 舒群, 『沒有祖國的孩子』, 華夏出版社, 2011, p.9.

14) 舒群, 『沒有祖國的孩子』, 華夏出版社, 2011, p.6.

15) 헤테로토피아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립과 소외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불안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헤테로토피아는 이상세계에 대한 추구이지만 균열, 해체를 가하는 기능적 의미도 존재하고 있다. 박명진, 「‘수호전’ 양산박의 생성과 소멸의 공간적 의미 -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학』, 대한중국학회, 2020, pp.54-55.

忍受的!”¹⁶⁾

그리고 귀리(果里)와 나-귀와레푸(果瓦列夫)는 또 다른 이상향을 바라고 상하이로 자유를 찾아 떠나간다. 이 두 명은 배에 몰래 타고 힘든 여정을 하면서도 도착지에 대한 자유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강한 갈망을 나타낸다.

然而, 下船的时候, 警察偏偏问果里, ——“你怎么不说话, 你哑巴吗?”

终于果里被看出是高丽人. 果里所说的魔鬼, 这里也有的; 于是果里又被魔鬼抓住了去. 他看我也被一只大手抓住衣领. 他说: “我是高丽人, 他不是的.”¹⁷⁾

여기서 ‘배’는 여러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데, 푸코는 ‘배’를 전형적인 헤테로토피아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⁸⁾ 귀리(果里) 역시 배를 통해 유토피아를 상상하며 상하이로 향하는 배에 몸을 맡겼지만 결국 그가 직면하는 것은 일본군의 감시와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며, 마침내 스스로 고려인임을 밝히며 ‘자유’가 사라지는 반공간으로서 작동하는 헤테로토피아가 되어버린다.

2) 감시-규율의 공간

푸코는 감시의 권력을 일망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은 그 권력의 대상을 교묘한 방식으로 객체화시키는 권력이라고 말하였다. 이 권력은 철저하면서도 지속적이며 어디에나 존재하고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이 보이지 않고 사회 전체를 감시하는 권력이다. 또한 감시와 규율을 위한 책략들은 구상한 인물도 없고 명확하게 표출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으로 파악하였다.¹⁹⁾

푸코는 권력은 공간의 장치를 활용한다고 하면서 학교와 병원, 감옥, 기숙사, 군대 막사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그가 말한 학교의 공간은 단순히 교육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규율을 작동시킬 수 있는 좋은 공간이며 더 나아가 위계질서를 공고히 세우는 기관으로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²⁰⁾ 이 ‘학교’라는 공간적 기능은 푸코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치인 것이다.

소설에 나오는 배경은 주로 학교, 기숙사이며, 이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16) 舒群, 『沒有祖國的孩子』, 華夏出版社, 2011, p.15.

17) 舒群, 『沒有祖國的孩子』, 華夏出版社, 2011, p.16.

18)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p.26.

19) 이남석, 『차이의 정치 - 이제 소수를 위하여』, 책세상, 2003, p.66.

20)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p.231, 2008.

있다.²¹⁾ 배경 지역은 당시 소련과 중국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헤이룽장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소속된 학교와 학생들은 중국과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일본의 동북지역 침략 이후 만주국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학교의 ‘깃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깃발’은 구속, 지배, 권력, 통치 등을 상징하는 작용을 하며, 높은 곳에 위치하여 권력의 감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깃발의 변화는 이러한 권력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소설에는 이 ‘깃발’이 변화됨을 나타내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전쟁 상황과 지배국가의 통치 권력을 나타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

1) 但是, 不过几天, 祖国的旗从旗杆的顶点匆忙地落下来; 再起来的, 是另样的旗子了, 那是属于另一个国家的-正是九月十八日后的第九天.²²⁾

2) 因为那时街头又满了果里说的“魔鬼”和“魔鬼”的旗子. 不过我们学校的旗子, 仍是同从前一样——一半中国的, 一半苏联的.²³⁾

3) 毕竟要有谢落的一天校役给我们看了一面新做的旗, 一半是苏联的, 另半面...那全新样的, 在地图与万国其中, 我们从来也没有见过. 校役悄悄地把旧的旗子扯落, 升上新的旗子.²⁴⁾

4) 我们天天仍是希望把旧的旗子升起, 那怕这是一年, 一月, 一天, 一刻也好. 可是, 我们总失望只有扑到储藏室的玻璃上, 看看丢在墙脚下的旧旗子. 不久, 更有惊人的消息传来: 我们学校的旗子快完全换新样的了.²⁵⁾

위의 본문 내용을 보면, 첫 단락에서는 주인공인 ‘나-귀와레푸(果瓦列夫)’의 조국인 중국의 깃발이 내려지고, 다른 깃발 즉 다른 국가 깃발(일본)이 올려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9월 18일(그리고 9일이 지나서)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관동군이 1931년 9월 18일에 일으킨 ‘만주사변’을 의미하며 일본이 중국 동북지역을 점령하였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깃발’은 만주국의 성립을 의미하며 만주국의 통치 권력이 만주 전역으로 이미 확대되었음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학교에는 그 권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옛 중국의 국기는 내려지고 이전에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새로운 깃발’이 학교의 깃대에 올려진 것이다. 중국의 깃발은 내려지고 소련과 만주국의 권력이 형성되었음을 말

21) 도시빈민의 개혁은 하나의 장치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데, 이 장치는 바로 감시와 시험, 그리고 학교였다. 스티븐 J. 볼 외 지음, 이우진 옮김, 『푸코와 교육』, 청계, 2007, p.100.

22) 舒群, 『沒有祖國的孩子』, 華夏出版社, 2011, p.9.

23) 위의 책, p.14.

24) 위의 책, p.14.

25) 위의 책, p.14.

해주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학교의 깃발은 소련의 것도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깃발인 만주국의 깃발이 학교에 걸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만주국의 완전한 성립을 말하며 일본의 왕도낙토의 통치 권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의 제일 정점에 있는 ‘깃발’이 일본의 만주국 건국과 통치를 의미하며, 이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감시와 규율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깃발’이 형상하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피감시자와 감시자간의 권력 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계 장치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²⁶⁾ 따라서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과 그곳에서 ‘깃발’이 점차 바뀌어 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시와 규율이 작동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지식-언어 권력의 공간

다음으로 푸코는 언어가 하나의 지식 권력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특히 신체-몸의 감시에 대해서 그는 언어가 감시와 처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식-언어의 권력은 비가시적인 권력으로 주체는 가시적인 억압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억압으로 지식과 제도에 무의식적으로 순응하는 훈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²⁷⁾

푸코는 언어를 공간 없는 생각이라고 했다. 푸코의 언어 핵심은 우리의 사유와 언어가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유하면서 사유가 언어화 될 때 그리고 언어가 우리로 하여금 사유하게 할 때 가시적인 언어와 말하는 주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담론의 질서-권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권력과 담론의 상관관계의 중심에는 언어가 놓여져 있다. 우리의 시대는 언어의 시대이며 정보의 시대이다. 언어란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의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지식의 권력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대는 기술의 발달로 구어와 문자가 지니는 소통과 의사 전달이라는 한계치를 넘어서서 또 다른 힘-권력을 지니고 있다.

수첸(舒群)의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에서도 이러한 언어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귀리(果里)는 고려 출신 아이면서 동시에 중국에 망명을 와서 사는 아이로 언어의 영향력에 포위되어 있다. 그는 조선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많은 언어를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그가 최종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어였다. 그는 소설 속에서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구사하지만 자신의

26)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2008, p.311.

27) 사공일, 「들뢰즈 관점에서 본 푸코의 권력 이미지」,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2010, p.23.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의 완벽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소설의 결말에서는 언어가 그의 권력의 주체가 되어 자신을 포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버린다.

1) 果里沙点着自己的鼻尖, 高傲的对果里说: “我们CCCP.”

“啊, 果瓦列夫, CCCP?”²⁸⁾

果里把我的名字呼出来. 果里沙窘了. 果里便摆头向我们所有的同学问: “果瓦列夫是中国人, 怎么行呢? 我是高丽人, 怎么就不行呢? 果里沙打了两声口哨后, 装做着苏多瓦给我们讲书的神奇说: “高丽? 在世界上, 已经没有了高丽这国家.”

2) 我们同是说着俄语, 仿佛忘记了我们是异国的人. 为了果里的安全, 不应当再说俄语, 要说中国话了. 所以我改用中国话说: “从现在起, 我们说中国话吧.”

“如果有人问是哪国人呢?” 果里仍是说的俄语.

“说中国话, 自然你要说是中国人啦.”²⁹⁾

.....

위의 예문들을 보면 결국 귀리는 자신이 언어 권력의 작동에 예속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소설의 첫 부분에는 ‘CCCP’가 나오는데 이는 소련을 의미하고 있으며, 소련이 권력의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 속에서 귀리(果里)는 소련어와 중국어를 잘 구사할 줄 모른다. 그는 기본적인 소련어와 중국어를 구사할 뿐이어서 조국 조선을 잃어버린 한 주체로서의 차별과 소외감을 가지게 된다. 소련 친구 귀리사(果里沙)가 “너는 조국이 없어”, “너는 못난 고려인이야(高麗棒子)” 라고 놀리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견뎌내야 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결국 그는 소설의 말미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친구인 ‘나-귀와레푸(果瓦列夫)’와 중국어를 급하게 연습하지만 몸의 권력의 하나인 언어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 그는 중국친구가 일본군에게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는 “내가 고려인이야!”라고 외치며 친구는 중국인이며 자신이 고려인임을 스스로 밝힌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언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인과 민족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권력의 주체로서의 절대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식은 권력이라는 푸코의 명제는 언어를 통해서 생겨난 위계질서를 역사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하였다. 그는 전달의 기능이 아닌 위계의 기능으로 작용하는 언어의 조건들을 파헤치고 말이 생성해내는 지식의 위계권력을 주장하였는데, 지식이 언어를 통해 권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소설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에서

28) 舒群, 『沒有祖國的孩子』, 華夏出版社, 2011, p.4.

29) 舒群, 『沒有祖國的孩子』, 華夏出版社, 2011, p.16.

학교는 규율을 나타내는 장소로서, ‘소련어’와 ‘중국어’가 언어 권력으로 작동하는 지식-언어 권력의 공간 등으로 나타난다. 결국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권력과 지식-언어의 결합은 감시의 시선이 등장하면서 발전되어 왔으며 권력은 이러한 감시의 시선을 통하여 객체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조절 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그리고 권력은 개인에 대한 감시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권력을 계속 유지 가능 하도록 하였다. 결국 모든 사회관계는 권력이고, 권력 외부는 없는 것이다

4. 결론

소설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는 동북작가인 수첸(舒群)이 창작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간도-만주 공간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호관계, 충돌과 조합 등의 혼란스러움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세 아이들의 시선으로 간도-만주 공간을 묘사하였다. 소설 속에 나오는 간도-만주 공간은 첫째, 경계-보정의 공간, 둘째, 감시-규율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 셋째, 지식-언어의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도-만주는 당시 고려인들에게 새로운 이상국가의 모습으로 인식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계-보정의 공간으로 현실과 다른 공간으로 낯섬과 고통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상공간으로 회귀를 꿈꿀 수 있는 보정의 공간으로 작동하였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사람에 대한 권력의 작동은 감시와 처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그 예로서 학교, 병원, 감옥 등을 설명하면서 인간 스스로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통해서 스스로 감시대상으로 서 행동한다고 하였다. 소설 속에서 간도-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그 곳에서 당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즉 중국과 소련의 접경지역, 일본의 만주 침략 그리고 만주국 성립 등 아이들의 대화와 시선 속에서 경계, 감시-규율, 지식-언어의 권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그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면서 지식-권력의 공간으로 작동하였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를 비추는 거울 이미지,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로서의 반(反)공간으로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간도-만주는 당시 일제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 만주에 부여했던 다양한 상상력들은 당시 고려인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해 주었다. 즉, 간도-만주가 지니고 있는 공간적 의미는 근대 질서의 관점에서 당시 사회의 희망으로서 ‘유토피아’를 찾아 갔지만, 그 공간들이 지녔

던 실제적 의미는 사실 푸코가 주장한 ‘헤테로토피아’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첸(舒群)의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 속에 나타나는 간도-만주의 공간은 푸코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적 의미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권영민, 『1896-1945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14.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2008.
_____,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스티븐 J. 볼 외 지음, 이우건 옮김, 『푸코와 교육』, 청계, 2007.
이남석, 『차이의 정치 - 이제 소수를 위하여』, 책세상, 2003.
舒群, 『沒有祖國的孩子』, 華夏出版社, 2011.

<논문>

- 김철, 「‘동북작가군’작가들의 문학작품 속에 ‘타자화’된 조선인형상연구」,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12.
남춘애, 「중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소설 “북간도(北間島)”의 중국 형상 연구」, 『어문연구』, 69집, 어문연구학회, 2011.
박명진, 「<수호전> 양산박의 생성과 소멸의 공간적 의미 -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학』, 대한중국학회, 2020.
박승규, 「푸코의 근대적 권력과 “주체”의 관계에 대한 “문제화”」, 『윤리연구』, 제49호, 한국윤리학회, 2002.
사공일, 「틀뢰즈 관점에서 본 푸코의 권력 이미지」,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2010.
_____, 「핀터의 The Dumb Waiter: 푸코의 권력의 전략」, 『현대영미드라마』, 22(1),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09.
이강인, 「중국TV드라마에 나타나는 ‘일상의 권력’에 대한 푸코적 해석」, 『중국학』, 대한중국학회, 2018.
이영희, 「일본소설 속의 헤테로토피아(化)하는 공간, 만주」, 『인문연구』, 2014.
안지나, 「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변형 - 민족협화에서 오족협화로, 왕도주의에서 왕도낙토로」, 『만주연구』, 18, 만주학회, 2014.
진 건, 「강경애와 소흥의 동북배경 소설 가운데 나타난 고난 비교」, 『문화연구』,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1.
최은주, 「타자화된 여성들, 일본 영화 속 ‘조선인 위안부’ 표상 - 오후루(お春)와 쓰유크(つゆ

子)의 사이에서」, 『일본학연구』, 44, 일본연구소, 2015.

한샤오·뉴린제, 「한국인 ‘위안부’ 제재 중국현대문학작품에 대한 고찰」, 『아시아문화연구』, 42, 아시아문화연구소, 2016.

허 경,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 초기공간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시인문학연구』, 3(2), 도시인문학연구소, 2011.

张 英, 「现代东北作家群的当代命运和创作走向——后东北作家群寻踪」, 遼寧師範大學大學院, 2016.

郑丽娜, 「论舒群的小说创作及其历史贡献」,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2013.

穆佳杰, 「舒群研究会及舒群中学揭牌仪式在哈尔滨市阿城区举行」, 『民族文学』, 2010.

杨 慧, 「隐秘的书写——1930年代中国东北流亡作家的白俄叙事」,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2014.

<인터넷자료>

“고려인”,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B%A0%A4%EC%9D%B8> [2021.09.23.]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東北作家, 舒群, 空間, 小說, 沒有祖國的孩子				
	영문	Northeast Chinese Writer, Space, Novel, Shu-qun, <i>Child without a Fatherland</i>				
<div>Michel Paul Foucault's Interpretation of Space in Shu-qun(舒群)'s Novel "<i>Child without a Fatherland</i>(沒有祖國的孩子)"</div> <div>Lee, Kang-In</div> <div>The Gando-Manju space in Shu-qun's "<i>Child without a Fatherland</i>" is depicted as a space where surveillance, punishment, and knowledge power operate. Foucault said earlier in "<i>Monitoring and Punishing</i>" that the operation of power over a person is through surveillance and punishment, explaining, for example, schools, hospitals, and prisons, and that humans act on their own through invisible surveillance networks.</div> <div>Foucault's "<i>Heterotopia</i>" also means that it exists as a mirror image reflecting utopia and as a half-space as a utopia in reality. Kando-Manju was recognized as a heterotopia space by the Japanese at the time, and the various imaginations granted to Manchuria made Koreans a very hopeful space. In other words, Gando-Manju, which existed within the territory of colonial modern China, has the spatial significance of heterotopia. Thus, the spatial meaning of Gando-Manju was heterogeneous in modern order at the time, but the actual meaning of the spaces was characterized by Foucault's "<i>Heterotopia</i>". Thus, the spatial significance of Gando-Manju and Heterotopia in the "<i>Child without a Fatherland</i>" of the Shu-qun is sufficiently corresponding.</div>						
저 자	이강인 / 李康仁 / Lee, Kang-In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1.08.20.	심 사 일	2021.08.26.	게재확정일	2021.09.16.